



박소현의 섹.시.토크

결혼을 약속했을 때 J의 남편이 부탁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었다.

“아침밥은 꼭 챙겨줘.” 평생 어머니가 챙겨준 아침밥을 먹고 살아온 남편으로서, 아침을 안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다.

남편이 외친 말이 ‘사랑한다!’였던 것에 비하면 참 비교되는 구호였다. 남편이 결혼생활의 정신적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을 약속한 반면 아내는 고작 아침밥 따위나 약속해야 했으니 말이다.

물론 남편의 ‘사랑한다’속에는 평생 일을 해서 가족을 건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지켜 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J는 생각했다. 그러나 나도 아침밥 해 주는 것이 뭐가 어렵나 싶었다. 게다가 결혼하면서 바로 전업으로 돌아선 덕분에 아침밥을 챙겨주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도 않았다.

신혼 초, 결혼생활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아침에는 국이며 찌개며 지겹지 않도록 구색을 맞춰 아침상을 차렸고, 밤에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평화로운 신혼의 행복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터였다.

아이를 낳고나자 J의 삶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새벽에 수유를 하느라 잠을 설치던 덕분에 아침에는 눈을 뜨기도 힘들었고 온종일 아이에게 매달려 하루를 보내야 했다. 남편에게는 신경을 써줄래야 써줄 여력이 없었다.

안아주지 않으면 울어대는 아이 때문에 씻을 시간도 없어진데다 옷에도 늘 아이의 젖과



침이 묻어 있기 일쑤였다. 그렇게 일 년이 지났다.

그런데 그렇게 일 년이 지나니 남편은 점점 더 J에게서 멀어져갔다. 아이를 예뻐하면서 도 집에 오면 짜증만 내기 일쑤였고 결핵하면 술 먹고 늦었고 집에 와서도 J에게는 화만 내기 바빴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분노가 터져 나오

고 말했다. “당신 지난 일 년 동안 나한테 아침밥 챙겨 준

게 대체 몇 번이야?”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입에서 아침밥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면서 왜 그래? 내가 놀면서 안 챙겨줬어?” “그것만 문젠 줄 알아?” “그럼 또 뭐?”

남자 인생서 제일 중요한 게 아침밥과 섹스야 기본만 잘 지켜주면 데리고 살기 편한 게 남자야

“당신 애 낳고 나랑 잡자리 한 번도 안 한 거 알아?”

그제야 J는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것 같았다. 한 번씩 질러 달 때마다 쏟아지는 잠과 사라진 성욕 때문에 대꾸도 하지 않았던 밤들이 떠올랐던 것이다.

다음날, 선배 언니와 통화를 하며 J는 남편과 있었던 싸움의 전모를 들려주었다. J의 이야기를 들던 언니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너 그거 몰랐어? 남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아침밥과 섹스야.”

“정말이야?” “물론 밖에서는 사회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도 있겠지만, 그런데 집에서 남편들이 원하는 삶은 결국 평생 아침밥 얻어먹고 섹스도 원할 때마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일걸? 그걸 잘 맞춰주는 아내가 최고의 거요.”

“그럼 아침에는 밥 챙겨주고 밤에는 몸으로 맞춰주지 않으면 아내의 역할을 못하는 거야? 서로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 주는 게 부부 아냐? 내가 힘든지 뻔히 알면서 그걸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거 아냐?” “그게 바로 입장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지. 너를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본능적으로 화가 나는 걸 어쩔겠니?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단순하기 때문에 기본만 지켜주면 데리고 살기에 편한 게 남자야.”

전화를 끊고 나서 J는 결혼식장에서 외친 ‘아침밥 꼭 해 줄게.’를 떠올렸다. 결혼식장이라 차마 시키지 못했을 뿐, 그 뒤에는 ‘섹스에 협조적 일게’도 이어져야 했을 것이다.

정말 남편은 아침밥과 섹스만 채워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J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일단 오늘 밤부터 남편의 본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연애칼럼 리스트>

섹스와 아침밥

리빙 센스

세 가지 맛, 구운 주먹밥

- 1.주먹밥 재료 준비 밥 4공기, 밥 양념(참깨 4큰술, 참기름 4큰술, 식초 4큰술, 간장 2큰술, 소금 1작은술) 2.속에 넣을 양념 만들기 ①소고기 고추장 볶음(다진 소고기 150g, 고추장 3큰술, 청주 1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설탕 1작은 술, 물 5큰술, 참기름 1작은술, 깨소금 약간) = 소고기와 양념을 볶아준다. ②참치 마요네즈(참치 180g, 마요네즈 3큰술, 와사비 1/2티스푼) = 기름기를 뺀 참치에 마요네즈와 와사비를 넣고 섞는다. ③김치 베이컨 볶음(김치 100g, 베이컨 100g, 깨소금, 후추) = 재료를 잘게 썰 후 볶아낸다. 3. 주먹밥 굽기 입맛에 맞게 준비한 속재료를 넣고 주먹밥을 만든 뒤, 간장 3큰술·설탕·참기름을 섞어 앞뒤로 발라주고 오븐이나 프라이팬에서 구워낸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1일(음 6월 9일 壬子)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and their daily fortune. Includes signs like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이웃집 조각 같은 편안함과 유쾌함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 MC 몽이 출연때문에 이번주 네티즌의 입방아에 올랐다. 논란은 한 주말 TV 프로그램에서 MC 몽의 출연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타면서 시작됐다.

제작진의 편집 실수"라는 반응도 보였다. 얼마전 나경은 아나운서와 백년가약을 맺은 개그맨 유재석도 인기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아나운서와 개그맨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유재석은 자신의 결혼식에 이효리, 김주하, 이승기 등 유명 방송인들이 대거 하객으로 자리를 하면서 네티즌의 이목을 끌었다.

MC 몽 TV 출연장면 '입방아' জন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달라진 모습을 보기 위해 미니홈피를 찾는 네티즌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이의정의 미니홈피도 답답아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다. 폭염주의보도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연일 30도를 넘나드는 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폭염주의보를 검색하는 네티즌의 수가 늘었다.



자신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장면이 방송돼 논란을 빚은 가수 MC 몽.

MC 몽 TV 출연장면 '입방아'

7월 17일 光日 籤. A 10x10 grid of numbers for a fortune-telling game. Includes text: 7월 17일 光日 籤, 7월 17일 光日 籤, 7월 17일 光日 籤.

하위석 5단, 귀중한 승리. 3회전 2국 총보(1~174). White: 하위석 5단 (북구청), Black: 이한재 5단 (조선대). Includes text: 하위석 5단, 귀중한 승리, 3회전 2국 총보(1~174), 하위석 5단 (북구청), 이한재 5단 (조선대).

바둑 소식. 이세돌 한국물가정보매 결승. 이세돌 9단과 홍성지 6단이 제4기 한국물가정보매 프로기전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다. 이세돌은 지난 9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 준결승에서 박정상 9단을 146수만에 불계로 꺾었다. 홍성지도 이날 이영구 7단을 맞아 293수 끝에 3집반승을 거뒀다. 결승에 진출한 이들은 결승 3번기로 우승자를 정하고, 제1국은 오는 2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는 제한시간 각 1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는 속기대전이다. 상금은 우승 2천500만원, 준우승 1천만원이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주목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굿모닝 잉글리쉬 <1201> That sounds cool 정말 좋겠다. A: What's on your mind? B: I'm thinking about getting a new car. A: Wow, that sounds cool. B: You're telling me. I've had this car for 10 years. A: 무슨 생각하고 있어? B: 새 차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지. A: 와, 정말 좋겠다. B: 그렇지! 난 10년 동안 이 차를 몰고 있었잖아. * cool : 훌륭한, 근사한 * You're telling me! (구어) (안 들어도) 다 안다, 과연 그렇군. * 메리한테 데이트하자고 얘기를 할까 생각중이야. = I'm thinking about asking Mary out.

오하오우 니혼고 <1201> 自分で使うものなんでしょう。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A: 今から空港(くうこう)へ行くそうですね。 誰かお迎(むか)えですか。 B: いいえ、この前日本からノートパソコンを買ってきたんですけど、税関(ぜいかん)で引(ひ)っ掛(か)かっちゃって。 A: でも、自分で使うものなんでしょう。 B: ええ、それが新品(しんぴん)なんですけど、箱に入れたまま持って来たのがまずかったみたいで。 A: 지금부터 공항에 간다고 하는데 누구 마중 갑니까. B: 아니요. 일전에 일본에서 컴퓨터를 사 왔습니다만, 세관에 걸려버려서. A: 하지만,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B: 예에, 그것이 신제품입니다만, 상자에 넣은 채로 가지고 온 것이 서툴렀던 것 같아요. 迎(むか)え : 마중 / 노트북 : 노트북 入(い)れたまま : 넣은 채로

니하오 쑹구위 <178> 他是不是姜老师? 저 사람 강 선생님 아니야? A: 你看他。 Nǐ kàn tā. 너 한 타. B: 谁? Shuí? 谁? A: 他是不是姜老师? Tā shì bù shì jiāng lǎoshī? 그는 강 선생님이야? B: 他不是姜老师。 Tā bù shì jiāng lǎoshī. 그는 강 선생님이 아니야. A: 저 사람 봐봐. B: 누구? A: 저 강 선생님 아니야? B: 강 선생님 아니야. 谁 [Shuí] 누구 不是 [bù shì] 아니냐

한자 이야기 <818> 反裘負芻(반구부추) 되돌릴 반, 갓웃 구, 짐질 부, 끌 추 반구부추(反裘負芻)는 갓웃을 뒤집어 입고 꼴을 짚어진다 뜻으로, 어려서서 일의 본말(本末)을 알지 못함을 비유한다. '갓웃'은 털옷으로 지금의 밍크코트 정도의 고급 옷이고, '꼴'은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풀이다. 풀 대신 말나뭇잎을 짚어준다는 반구부추(反裘負芻)도 같은 말이다. 이 말은 중국 전한(前漢) 말기의 학자 유향(劉向)이 과거사를 거울삼아 후대에 가르침을 주고자 편집한 고사집 '신서(新序)'에서 유래한다. 전국시대의 위(魏)나라 문후(文侯)가 놀러 나갔다가, 길에서 갓웃을 뒤집어 입은 채 꼴을 지고 가는 한 농부를 만났다. 문후가 그에게 물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갓웃을 뒤집어 입은 채 꼴을 지고 가는가?"라고 하였다. 그 농부가 대답하길, "저는 갓웃의 털이 닳을까 아까워서입니다."고 하였다. 그것을 들은 문후가 다시 말하길, "너는 갓웃의 안 부분이 다 닳게 되면 털이 붙어있을 곳이 없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다.

더마플라스트 밴드.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